

영아의 기질과 부의 양육참여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윤 경(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이 미 숙(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의 기질과 부의 양육참여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출산과 영아 양육이라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영아의 모를 대상으로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한 패널자료로서, 1차년도 가구방문 면접조사한 패널가구 1,808명의 어머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패널자료에서 사용한 영아의 기질 척도는 박응임(1995)이 사용한 것으로 정서성과 활동성 기질에 대해 각 5개 문항씩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성 문항의 예는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이며, 활동성 문항의 예는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이다. 정서성과 활동성의 Cronbach's α 는 각각 .74 와 .70이다. 부의 양육참여 척도는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총 4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77이다. 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84이다. 모의 우울척도는 Kessler 우울척도(K6)로 총 6개의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91이다. 본 연구에서 패널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Pearson 상관관계,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영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하였다.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하였다. 둘째,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의 학력이 높고 영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으며, 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이때 여아보다 남아일 경우, 그리고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졌다. 셋째, 모의 우울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영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모의 우울이 낮아졌다. 반면,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모의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는 출산 후 영아의 기질적 특성과 영아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우울 증상이 증가할수록 모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영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활동성 기질과 달리 정서성 기질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영아의 정서성 기질에 대한 긍정적 조절방안의 개입이 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의 양육참여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의미있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정과 직장, 사회교육기관에서 남편의 양육참여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